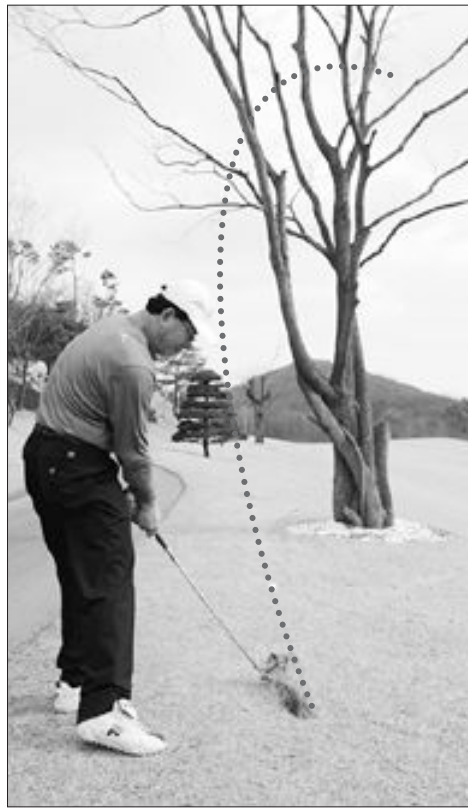




▲드로우샷=드로우샷 어드레스 때 스탠스가 어깨 정렬은 닫혀져야 한다.



▲드로우샷 피니시=드로우샷 피니시는 팔꿈치가 거드랑이에 붙어서 낮게 되어야 한다.



▲페이드샷=어드레스 때 스탠스는 왼발이 왼쪽으로 향하고 클럽 페이스도 오픈돼야 한다.



▲페이드샷 피니시=페이드샷 피니시는 평소보다 하이 피니시 자세가 좋다.



김진철 교수의 신나는 실전 골프

〈전남과학대 골프·프로캐디학과 교수〉

자세·기술 익히면 휘어진 홀도 '생각대로'

■ 드로우샷·페이드샷

재미교포 골프 선수 위성미(21·나카골프)가 지난달 29일 끝난 LPGA KIA클래식 4라운드 11번 홀에서 또 한번 볼 위반으로 2벌타를 받았다.

문제는 두 번째 샷이 물에 빠지면 시작됐다. 오른쪽 발을 물에 담그면서까지 세 번째 샷이었지만 공은 겨우 물 밖으로 꺼내는데 그쳤다. 공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헤어드라인을 빠져나오지 않은 가운데 위성미는 클럽 헤드를 헤어드라인 지면에 갖다댔고 바로 이 장면이 2벌타를 받은 이유가 됐다. 공이 헤어드라인에 있을 때 지면이나 물을 손 또는 클럽으로 접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프로들도 볼 위반으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주 실전골프는 드로우 샷과 페이드 샷에 대해 알아본다.

라운드 중 페어웨이에서 큰 나무가 그린을 가리고 있거나, 그린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어있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나무를 피해서 혹은 휘어진 그린을 향해 교묘하게 볼을 쳐내는 멋진 샷을 시도한다. 생각대로 볼이 날아가면 말 그대로 '굿 샷'이다.

이처럼 왼쪽으로 휘어지게 치는 것을 드로우(draw) 샷,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치는 것을 페이드(fade) 샷이라 한다.

대부분 이러한 샷은 프로나 엘리트 선수들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아마추어들은 어쩌다 의도하지 않은 휘어진 샷이 나오면 잘못된 샷으로 생각하게 된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의도한대로 샷을 날릴 수 있는 자세와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샷을 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각도가 작은 클럽이 볼에 백스핀보다 사이드 스핀작용이 더 커서 볼의 궤적을 휘어지게 한다. 각도가 큰 아이언은 백스핀이 크고 사이드 스핀이 작아서 볼의 휘어짐을 줄여준다.

드로우-스탠스 오른쪽 클럽면은 직각 페이드-볼의 위치 평소보다 왼발쪽에

#1. 드로우 샷
홀이 그린의 왼쪽 구석에 있는 경우에 드로우 샷이 필요하다. 목표물을 똑바로 향하는 것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위험하지만 갖대의 오른쪽을 겨냥하고 홀을 향해 드로우 샷을 날리면 위험성은 줄어든다. 만약 볼이 똑바로 가더라도 그린 중앙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도대로 드로우되면

짧은 퍼팅을 기대할 수 있다. 드로우를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는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만약 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면 발과 허프 그리고 어깨를 목표물의 오른쪽으로 향하게 한다. 휘어지는 정도를 크게 하고 싶다면 양 다리를 보

다 더 오른쪽으로 향하고 클럽면은 목표와 직각이 되게 한다. 또 어떤 클럽을 사용하든지 볼을 평상시 보다 더 뒤쪽에 놓아야 한다. 드로우 샷은 공격적인 릴리스를 필요로 한다. 이는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가능하다. 임팩트 때 발의 방향과 평행하게 인-아웃으로 스윙경로가 만들어지게

릴리스 한다. 발의 정렬선과 비교하여 닫혀있는 클럽면이 임팩트 때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닫혀지게 되고, 볼이 목표물의 오른쪽을 향해 출발해서 왼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

#2. 페이드 샷

페이드는 그린의 왼쪽에 위험지역인 bunker나 워터헤저드가 있거나, 깃대그린의 오른쪽에 있을 때 유용하다. 그린의 오른쪽으로 볼을 잘못 보내는 것이 왼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면 깃대의 왼쪽을 겨냥하면서 페이드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샷이 계획대로 된다면 볼은 홀 가까이 놓인다. 조금만 휘거나 똑바로 볼을 날려도 그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볼은 그린의 왼쪽에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

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어드레스의 위치는 드로우 샷의 반대이다. 즉 드로우 샷과 같이 클럽면은 목표를 향하지만 발-엉덩이-어깨는 오픈스탠스와 같이 목표의 왼쪽을 향한다. 또한 볼의 위치는 평상시 보다 더 왼발쪽에 놓는 게 좋다.

클럽 헤드의 스윙 경로는 잘 정렬선을 따라서 아웃-인 스윙경로가 만들어진다. 클럽면은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오픈되고, 임팩트때 어드레스와 같게 되어 샷이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페이드 되도록 사이드 스핀을 만든다.

이러한 샷은 드로우 보다 한 클럽 정도 덜 날아가고 그린에서 굴러가는 경우가 적다. 페이드 샷은 그린에 단단할 때 유용하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시추에이션 골프 룰

마크 얹고 볼 들어올리면 1벌타 퍼팅할 때 우산 씌워주면 2벌타

Q : 깜빡하고 퍼팅 그린 위의 볼을 마크도 하지않고 집어 올렸을 때.

A : 코스의 어디에서든지 경기 중인 볼을 집어 올릴 때에는 반드시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1페널티를 부과하고 볼은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규칙에 따라 볼을 집어 올리거나, 마크를 하다가 볼이나 볼 마커를 우연히 움직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Q : 한 손에는 우산, 다른 손에는 퍼터를 들고 퍼팅을 하고 홀아웃을 했을 때.

A :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경기자는 물리적 원조나 바람, 비 등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위반 했을 때 2페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자신이 우산을 쓰고 퍼팅하는 것은 규칙위반이 아니다.

Q : 캐디에게 어디를 목표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자, 캐디가 발을 옮겨 디디며 '이곳을 목표로 하세요'라며 가르쳐주었을 때.

A :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 스트로크 하기 전에 말이나 행동으로 퍼트 라인을 가리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퍼팅 그린 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위의 상황에서 캐디가 발을 옮겨 디딘 순간 2페널티를 부과하고, 발을 다른 곳으로 옮겨 디디며 페널티는 사라지지 않는다.

Q : 공교롭게 경기자 4명 모두 같은 bunker 안에 볼을 빠뜨렸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샷하기 전에 공용 캐디가 bunker 안의 발자국을 닦았을 때.

A : 헤저드 안에서 스트로크 하기 전에 자신 또는 자신의 캐디가 헤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지면에 닿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캐디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플레이어에게 있으므로 모두에게 2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주의 골프용품

띄우기 쉽고 치기 쉬워 안정된 샷

SF-308 페어웨이우드

티샷 후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치기 쉬운 페어웨이우드를 개발한 것이 'SF-308'이다. 지금까지 포틴의 페어웨이우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헤드 사이드는 보다 치기 쉽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관성모멘트를 높여놓은 모델이다.

중심점을 낮게 설정하여 보다 쉽게 공을 띄울 수 있도록 했다.

우드클럽은 페이스 면에 작은 굴곡을 주어 만든다.

'SF-308'은 그 굴곡을 최대한으로 적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페이스의 굴곡을 줄임으로써 페이스하부에 볼이 맞닿아 나오는 지경이 줄어들었다. 또 로프트가 보이는 것으로 어드레스가 보다 편해 졌다.

전체적인 헤드형상의 이미지



는 기존의 'JC-808'을 기본으로 포착력이 좋고 어드레스 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했다. 또 페이스하부의 전폭적인 부분은 튼튼하게 만들어, 보다 쉽게 볼을 띄우고 치기 쉽게 만든 모델이다.

취재협조:골프프리카 062-368-7800

금산공인중개사
T.881-5888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주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주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김진군 칠랑면 칠랑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점용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미량에서 광주상행선 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랑농공단지 앞 유일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창고부지 (서광주역 2순환도로연)
■ 창고부지 약 2600㎡(창고 480㎡) 대지 약 950㎡
■ 매매가: 22억(조정가능)
■ 대지, 창고 분할 매매가능
■ 들뜬, 창고부지로 최적지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치 ●
하순읍 전대병원인근신부군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로변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안전성, 무공해 지역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 좋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입니다. 황토 흙벽돌 100톤 사용하고 습도조절,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인후 단열피로 회복이 주중 주일이 직영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정성들어 짓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퇴직자 최적화)

매매가: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250평 • 건평: 73평
- 지하1층, 지상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차용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심아전기
- 조경: 잔디, 소나무
- 건축 준공: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고아 슬라브, 현숙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 인테리어 휴향도 벽돌, 휴향로 바다 편백나무, 소나무 미술
- 2층 방바위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키용 시공)

◎ 주민적거래 ◎
꼭하십시오! 전화요망
☎ 011-634-4114

한국부동산건설링

■ 매곡동 4층건물
- 건평 100평 / 대지 250평 (매매가 9억9천) 대출 9억 1억으로 인수 가능 (정형외과적합, 요양병원, 학원...)

■ 1만평 규모 토지 (풍암지구 수완지구 보유)
-골프 연습장, 대형교회, 법인학교 적합

- 원룸, 상가, 건축부지 급매물 또는 경매로 맞춰드립니다.
- 병원, 교회, 노인병원 부지 너무 좋게 있습니다.
- 창고용지, 공장부지 시세 50%로 물건있습니다.
- 미트지리도 찾아드립니다.
- 경기가 안좋다보니 우량물건이 많이 있고 제 물건이 맘에 안들시 고객이 맘에 들때까지 찾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부동산 건설링
농성동 641-5 서구형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당>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8-5008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토폰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